

소그룹 교재 #1

제목: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본문: 4:19-24

찬송가: 336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75 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01 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는 질문

누군가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나요?

(특히,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나 반지, 혹은 목걸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 부모님이나 물건을 준 사람에 대한 기억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물으세요. 물건을 사라졌지만,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 경험, 혹은 물건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면 더 좋겠죠.)

본문 이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돌 열 두 개를 가져다 기념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거나, 우물을 파거나, 또는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 후대에 증거로 남겼습니다. 참 가깝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깝한 마음으로 남겼던 기념탑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기념탑 혹은 기념 우물들도—더 자세히 조사해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후대에 남기고자 했던 마음은 아름답고 가깝한 것임에 틀림 없지만, 그 뜻을 새겨 담은 돌덩이들은 어디로 쓸려갔는지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쓰시던 찬송가가 소중한고, 멀리 떠난 아들이 보던 책이 살가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은 내가 기억하는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일 뿐, 그 사람은 자체는 아닙니다. 소중한긴 하지만, 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지만, 영원할 순 없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기념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라지고야 만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과연 어디에 새겨 기억해야 할까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과연 어디에 써야 단단히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말씀 속으로

1. 이스라엘은 열 두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나요?

2.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려는 습관은 성경 어디에서 또 발견할 수 있나요? (창세기 28:10-22, 여호수아 24:25-28 등)
(기회가 되면, 과연 돌에게 어떤 특성이 있어서 돌을 세워 기념했는지 나누어주세요. 좀 단단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한국에서도 돌을 세워 기념하려고 했던 것이 많죠? 그것을 간간히 나누어주셔도 좋겠습니다.)
3. 신명기 30:6 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까? 또한 골로새서 2:11 은 할례에 대해 무어라 말합니까?
(할례도 결국엔 몸의 은밀한 곳에 새겨 넣는 구원의 기념비입니다. 돌을 쌓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는 없어질 몸에 하는 것이 아닌 결국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속으로

1. 우리는 무엇을 남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증언해야 할까요?
(큰 예배당입니까? 번쩍이는 스테인 글라스 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교회 의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결국엔 다 없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절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남기려는 시도를 비판하지 마시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이보다 먼저 마음에 혹은 삶에 새기는 것이 먼저라는 쪽으로 유도해주세요.)
2.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생각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깨닫게 해주는 사람: 알고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과연 그 사람의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합니까?)
3.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기 원합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남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주길 원합니까? 당신의 무엇을 그들이 기억해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떠난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억되기 원한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암송구절 신명기 30: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신명기 30:6)

소그룹 교재 #2

제목: “단번에”의 유혹

본문: 6:1-21

찬송가: 264 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214 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425 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는 질문

한 순간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순간에 당신 인생이 뒤바뀐 적이 있습니까? 한 순간에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 이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리는 '단번에'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칠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또 돌았던 과정은 생략하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단번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읽고 싶은 유혹이죠. 사실, 여리고가 무너진 이야기의 주제는 광야를 떠돌던 별볼일 없던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단번에' 혹은 '한방에' 무너졌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단번에' 무너진 것으로 읽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극적인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극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려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신앙 태도 때문이지요. 이 근시안적 신앙 태도는 일상 속에 펼쳐진 꾸준한 성화의 과정보다 한방에 마음이 불타오르는 성령 체험을 더 좋은 것,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도 꾸준히 타오르는 모닥불이 아닌 단번에 타오르다 이내 꺼져버리는 성냥불과 같아졌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혹은 '한방에' 일어난 일로 여리고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땐, 칠일 동안 언약궤를 메고 이 성을 돌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적들의 냉소와 스스로 느껴지는 모멸감을 이겨내고, 그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꾸준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 꾸준한 이스라엘의 순종과 번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합작품입니다. '단번에'와 '꾸준히'가 만들어낸 믿음의 완성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몇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습니까? 이 행진을 군사적 행진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점령해야 할 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7 일 동안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다는 것이 다른 군사적 행진과는 조금 다르죠)
2.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 장)
(기생 라합은 여리고로 잠입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고, 그 보답으로 목숨을 유지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3. 일주일 동안 공격은 하지 않고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 주변을 돈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았습니다.)

삶 속으로

1.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때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한 순간의 경험과 점진적인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낸 것 입니까? 구체적인 변화 하나를 들어 나누어 보십시오.
2. 강렬하고 극적인 영적 경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적 경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강렬하고 극적인 체험은 결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시점을 제공해서 떨어버리게 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극적이고 강렬한 체험만을 따라 가다 보면 신앙은 삶이 아닌 이벤트가 됩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적 경험은 단단한 거룩함, 성화를 만들어내지만, 율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신앙을 윤리적인 삶과 동일하게 여겨 신비한 것을 밀쳐내기 쉽습니다. 속도원들에게 답변을 금방 주시지 말고 계속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3. 당신에게 오랜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일구어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암송구절 고전 10: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소그룹교재 #3

제목: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본문: 14:6-15

찬송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347 장, 허락하신 새 땅에; 508 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여는 질문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접대를 받지 못해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까?

본문 이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데아를 떠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갈렙은 홀연 그 자취를 감추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취를 감추었던 갈렙이 다시 나타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았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헤브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헤브론엔 거인 자손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갈렙은 스스로 자청해 거친 땅, 헤브론으로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갈렙의 이야기에서 우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교회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도드라지는 것 중 하나는 갈렙이 대접 받기를 거부하고 다시 전장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했던 긍정적인 보고를 두고 갈렙은 여호수아 옆에 앉은 2 인자가 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선택한 곳은 전장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같은 2 인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몸으로 느껴지는 전쟁터로 말을 달렸습니다.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거칠지만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땅을 택한 갈렙, 오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1. 갈렙은 지금 몇 세입니까?(7 절, 10 절)
2. 가데스 바데아에서 성실한 보고를 한 갈렙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9 절)
(모세로부터 갈렙은 밟는 땅마다 네 것이 되겠다는 큰 상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좋은 땅, 편안한 땅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거친 땅 헤브론으로 갔죠.)
3. 갈렙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존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10 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말은 그 분의 은혜로 살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4. 길 떠나는 갈렙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배웅하고 있습니까?

삶 속으로

1. 교회에서 마땅히 받을 만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서운하게 한 것입니까? 내가 그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인정 받지 못해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이 때 나누게 해주세요. 불평을 나누지 마시고, 그 지체로 하여금 서운하게 느끼게 한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게 해주세요)
2. 갈렙은 자신이 여태껏 생존한 것인 하나님의 은혜(10 절)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루게 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당신에게는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하다는 것은 내가 교회와 공동체에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발견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서운하긴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습니다.)
3. 당신은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편안히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추구하고 싶은 "새 것"은 무엇입니까?

암송구절 시편 85: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소그룹교재 4

제목: 흠어져!

본문: 21:1-3, 41

찬송가: 505 장 온 세상 위하여; 510 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1 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여는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있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편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설명

이스라엘 12 지파 중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 받지 않았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나중에는 성전을 돌보는 직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다른 열 한 지파가 각각 떼어준 성읍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른 열 한 지파가 *한 곳에 지파끼리 모여* 살았던 것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제사(예배)를 주관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무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신교 믿음에 따르면, 평신도이건 목회자이건,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레위 지파라면, 레위 지파가 다른 열 한 지파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뿔뿔이, 골고루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끼리 모여 우리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곳곳에 스며들어가 거기서 제사장적 삶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친교로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흩어짐을 면하자'했던 바벨탑의 무리와 우리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충분히 흩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충분히 스며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1. 레위 사람들은 왜 땅 배급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3:33)
2.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입니까? (41 절)
3.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엔 정답은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누십시오)

삶 속으로

1.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일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함께 모임으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2.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일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경험해본 적이 있으면 나누어주십시오.

(이민 교회 중 큰 부분은 교회 안의 관계가 인간 관계의 전부일 때 나타납니다. 처음에 좋아서 만나지만,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풀어낼 다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서로 성숙하고, 나아가 선교와 전도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유대 관계 강화에서만 끝난다면 이런 병폐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3.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스며 들어 살아야 한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암송 구절 마태복음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